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0 ~ 12/16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원철	불광출판사	6	빅 마인드	앤스앤 메릴 정신세계사	
2	인생수업	법륜	휴	7	흔적 없이 나는 새	수물 김명사	
3	백일법문(개정증보판)	성철	장경각	8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불서기 공모 당선작 모라나우	
4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9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개정판)	김윤수 한산암	
5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일진	담앤북스	10	미술관에 간 붓다	명범 나우앤앤서클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사찰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불교세시풍속

오인 지음 | 운주사 펴냄 | 2만3천원



개한 책이다.

한국과 중국의 방대한 문헌들 속에서 불교 세시풍속과 관련된 내용들을 집대성하여 월별, 일별로 재편집함으로써 불교 행사와 풍속, 그리고 그 각각의 의미를 소개한 책이다.

고요하고 한가하게 보이는 산승생활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사찰의 일 년은 새해 첫날부터 설날 그믐날까지 매일매일이 다양한 법회와 행사, 그리고 기념일 등으로 분주함의 연속이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 년 동안 수행자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사찰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개한다. 사찰은 그 공간의 특성상, 가장 주된 모습은 수행과 관련된 일일 수밖에 없다. 혹은 기도나 포교 등과 관련된 일들이 뒤따를 것이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것들이거나 혹은 다른 특성의 목적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법회, 그리고 풍속이 특정한 때에 맞춰 진행

된다.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모여 '불교문화'라는 독특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한다. 불교의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신일, 출가일, 성도일, 열반일 등을 기념하고 기리는 행사를 비롯하여, 다른 부처님들이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여러 보살들과 관련된 법회 등이 열린다. 또는 계절이나 세속의 명절 등과 연관된 행사 등도 지속적으로 열린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법회나 행사들은 수행과 쉼의 차이를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그 성격이나 상황에 맞는 각각의 독자적 형식을 갖는다.

그런데 이런 세시풍속 중에는 현재까지 유지되어 실행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그 자취조차 찾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새해 첫날 행하던 한국 불교 고유의 풍속으로 법고(法鼓)와 재미(齋米)가 있다. 이는 스님들이 1월 1일에 북을 치며 거리를 다니거나 집들을 방문하며 권선을 하던 풍속으로, 정조 때 승려들의 도성 출입이 금지되면서 사라진 풍속이다. 결연두(結緣豆)는 4월 초파일일에 행하던 풍속으로, 염불에 사용한 콩을 나누어 먹던 세시 풍속이었다.

책은 <형초세시기>와 <연경세시기> 등 중국의 세시풍속 관련 문헌, <동국세시기>와 <열양세시기> 등 한국의 세시풍속 관련

문헌, <대반열반경>과 <백장청구> 등 불교 경전 및 선문헌, <대당서역기>와 <입당구법순례행기> 등의 순례기, <삼국유사>와 <조선왕조실록> 등의 역사서를 망라한 방대한 문헌들을 조사하여 불교 세시풍속과 관련된 내용들을 세세한 것까지 찾아 엮은 것이다. 즉 여기저기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불교풍속 관련 기록들을 모아 월별 일별로

불교세시풍속 내용·의미 집대성

법고·재미 등 사라진 풍속 소개

결연두... 콩 나눠 먹던 풍속

소멸된 풍속 재탄생 기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불교세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책의 일차적 가치가 있다.

또한 각각의 세시풍속들이 발생한 유래와 의미를 밝히고, 그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오랜 불교문화와 생활상, 수행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는, 불교행사와 풍속에 대한 종합적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역할을 기대하

게 한다. 첫째, 불교세시 관련 원전자료를 집대성하고 있어서 연구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에 필요한 원문을 최대한 수록하여 불교세시 연구의 기초자료집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불교문화에 대한 연구 및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불교세시풍속에 관한 문헌정리는 불교문화 연구의 영역을 넓혀줄 것이며, 나아가 실생활에서 풍부한 불교적 접근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책은 수록된 자료 및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소멸된 불교세시 풍속을 재탄생시키고, 다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문헌을 통해서 확인된 세시풍속 중에서 1월 1일의 '천반회', 4월 8일의 '결연두', 12월 31일의 '승병' 등은 19세기까지 있었던 풍속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스님들은 이름조차 생소하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는 의미나 방법은 현대에도 충분히 되살려서 수행방법 또는 포교방법으로 재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불교세시에 대한 정리는 불교문화 연구에, 그리고 옛 스님들의 생활문화를 통하여 현대 수행자들이 출가정신을 돌아보게 되는 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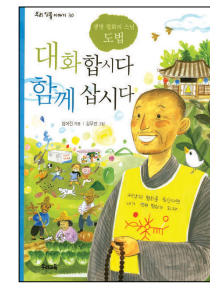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네가 있어 내가 있다

생명 평화의 스님 도법

-대화 합시다 함께 삽시다

임어진 지음 | 김무원 그림 | 우리교육 펴냄 | 8천5백원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도법 스님의 삶에 관한 것이다.

도법 스님은 18세에 스님이 되어, 13년 동안 여러 절에서 선 수행을 했다. 이후 <화엄경>을 새로이 읽고, 간디의 사상을 만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각자가 마주한 삶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며,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은 모두 관계를 맺고 이어져 있



연대 운동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2004년 실상사 주지 소임을 내려놓은 뒤, 생명 평화 탁발 순례의 길을 떠났고, 이후 5년 동안 3만 리를 걸으며 8만 명의 사람을 만나 생명 평화의 가치를 전했다. 지금도 도법 스님은 순례를 나서며 '화쟁'과 '생명 평화'로 '인드라망'의 삶을 살고 있다. '인드라망'에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바탕이 되며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뜻이 담겨 있다. 살아 있는 생명체는 물론 돌, 흙, 먼지까지 모든 무생물을 포함하여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다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뜻이다.

책은 도법 스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 다뤘다. 먼저 젊은 시절의 삶과 승려가 된 뒤, 13년 동안 선 수행을 하며 진리를 찾고자 몸부림치던 시절 이야기, 이후 <화엄경>의 세계를 재발견하고 간디의 철학을 만나면서 큰 깨달음을 얻은 시기의 이야기를 다뤘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은 뒤 '인드라망'의 삶, 생명 평화의 삶을 실천하는

생명, 평화의 삶 도법 스님 조명 "모든 존재 모두 하나로 이어져"

시기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남월 실상사 주지를 맡고 있었던 도법 스님은 실상사와 실상사 소유의 논밭을 바탕으로 귀농 학교와 대안 학교 등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생명 살림의 삶을 나누기 시작한다. 귀농 학교를 시작으로 '인드라망'의 그물을 짜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도법 스님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생활 협동조합, 대안 교육, 환경 연대 운동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산, 지리산을 살리는 운동을 하면서 전국 곳곳 3만 리 길을 걸어 8만 명을 만나는 순례의 시기다. 순례를 통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고 아픔을 주는 사람도 만나면서 갈등의 틀에 갇힌 사람들에게 '대화하고 함께 살자'고 이야기한다. 도법 스님은 순례를 통해 성당도 교회도, 목사님도 신부님도 마다하지 않고 만나고 기도하며 걷는다. 이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작은 차이를 뛰어넘는 마음, 편견으로 나와 남을 나누지 않고,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걸 깨닫는 일, 바로 스님이 외치는 '화쟁'의 시작이 아닐까. 박재완 기자

불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것들

영축산에 머무는 새

남월 스님 지음 | 맑은소리 맑은나라 펴냄 | 1만7천원



수 있을까. 이렇듯 혼탁해진 마음을 한 곳으로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불교이다. 사람들에게 평온함과 자신을 찾아줘야 하는 것이 진정한 불교인 것이다. 하지만 불교가 마음의 평온을 준다고는 해도 처음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은 당혹스럽기만 하다. 방대한 경전, 뜻을 알지 못하는 스님들의 축원 등은 법당에 앉아 있는 것을 무색하게 만들 뿐이다."

책은 남월 스님이 출가수행자로 살아오면서 지녀온 다양한 불교교리와 상식, 불자예절 등 불자라면 누구라도 숙지해야 하는 내용을 장르별로 나누어 집대성한 것으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의 불교에 대한 기초적인 궁금증을 풀어준다.

하지만 남월 스님은 불교 입문자가 지식에 대한 갈증을 풀기 전, 불교에 대한 친근감을 먼저 키우라고 말한다. 이에 남월 스님은 불교가 결코 남다른 이야기가 아닌 일반인의 삶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알려주는 것으로 첫 장을 열고 있다.

제1장 '남월 스님'에서는 '학창시절',

'도반을 그리며' 등 남월 스님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글이 실려 있으며, '화두', '수행' 등의 주제로 쓴 시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유년기부터 뛰어난 글재주로 주목 받았던 남월 스님의 예시에 <아기도 사랑의 단맛을 안다> 등은 남월 스님이 불자에게 바라는 것과 나아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삶의 지침이 담겨 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제2장 '불교용어'부터는 남월 스님이 문헌을 참고해 우리가 흔히 사찰에서 접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불교의 모든 것을 담았다. 가사불사의 공덕, 처사와 거사의 차이, 오체투지, 묵언, 죽비, 아사리, 회향, 동지 등 흔하지만 불자라면 응당 알아야 할 용어의 의미를 정리했다.

제3장 생활법문에서는 나에게도 부처가

있다. 복덕을 부르는 삼바라밀, 보살삼매론, 법구경 등 평소 불자들이 마음에 새기면 좋은 문구와 불자로서 갖추어야 할 예 등을 실었다.

제4장 불교이야기에는 예수는 한 때 불교 고승이었다, 선사, 팔상전, 영축산 통도사 등 남월 스님이 중히 여기는 다양한 불교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제5장 '불교실화'에는 목탁의 유래에 얽힌 설화, 소금장수와 신기한 나뭇잎, 염라대왕도 감복한 효성 등 불자가 아니어도 가법게 읽어도 좋을 유쾌한 불교설화를 소개하고 있다. 제6장 스님들에서는 진묵대사, 자장율사, 무주화상 등 대덕 스님들의 생애와 업적 및 설화를 실었다. 또한 부록에는 진언, 다라니, 사구계, 염승 계문을 실어 불교의 정수를 완성했다. 박재완 기자

불보살님의 자비와 가피를 함축하고 있는 진언(다라니)!

진언의 공덕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진언 사경!



사륙배판/112쪽 내외/각 5,000원

4 학업성취를 위한 진언

8 화목한 가정을 위한 진언

1 과거세부터 지어온 죄업을 참회하는 진언

5 병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언

9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부르는 진언

2 업장을 소멸하는 진언

6 소원성취를 위한 진언

10 돌아가신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12 재물을 부르는 진언

3 태교와 어린이를 위한 진언

7 취업과 승진을 위한 진언

11 건강과 장수를 위한 진언

13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